

## 소아정신과 환자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ENTAL MARITAL RELATIONSHIP OF CHILD PSYCHIATRIC PATIENTS

임계원\*\* · 홍강의\*\*\* · 이근후\*\*\*\*

Ke Won Lim, M.D.,\*\* Kang-E.M Hong, M.D.,\*\*\* Kun Hoo Rhee, M.D.\*\*\*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1987년 7월부터 9월사이 소아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부모들과 일반 아동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MSI)와 부부 적응도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 DAS)의 두가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환자 부모군은 환자의 진단면에 따라 정신증, 신경증, 틱, 자폐증, 정신지연의 5군으로 분류하였고 각군의 결과가 평가되었다

- 1) 환자부모군은 대조군보다 결혼만족도가 낮다.
  - 2) 환자부모군은 대조군보다 부부 적응도가 유의하게 낮다( $P < 0.01$ ).
  - 3) 환자부모군, 대조군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역할개념이 더 진보적이며 환자부모군에서 역할 부담이 여자에게 편중됨으로써, 양육갈등(conflict in child rearing)은 모성 우월현상과 연관됨을 시사한다.
  - 4) 원래 가족의 고통스러운 가족력(Family History of Distress)는 결혼의 정서적 의사소통, 성생활, 자녀양육과 연관이 깊다.
  - 5)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MSI)의 전반적 고통 척도(Global Distress Scale ; GDS)에 의하면 정신증, 신경증, 자폐증, 정신지체, 틱의 순서로 불만족도를 보였다.
  - 6) 부부 적응도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 DAS)에 의하면 정신증, 신경증, 틱, 자폐증, 정신지체의 순서로 부적응도를 보였다.
  - 7) 틱군은 자녀양육 갈등 및 양육태도에 문제점을 시사하였고 부부관계 자체는 유의한 장애를 보이지 않았다.
- 위의 결과로서 부부의 부적응 및 불만족은 자녀양육 및 자녀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소아의 정신증과 신경증군의 발병요인은 결혼 불만족과 부적응과 관련이 깊으며 자폐증이나 정신지연군의 발병요인은 결혼 불만족과 부적응과 관련이 깊지 않음을 시사한다.

### 서 론

Bowen(1978)이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이 형성되는 모체라고 하

였듯이 아동의 성격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 및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Minuchin(1979)은 부부는 가족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부부관계는 모든 가족 관계의 부부 불화는 가정 불화의

\* 본 논문은 1990 서울대학병원 특진연구보조로 이루어 진것임.

\*\* 임계원 신경정신과의원 Dr. Lim, Neuropsychiatry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Div. of Child-Adol.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문제가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향한다고 생각하였고 정신분석학 이론과 학습이론에 의거하여 주로 모자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병적 행동이 정신 증적 양상이나 행동 장애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상황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었으며 Bateson등(1956)은 정신분열병 가족의 의사소통에 있어 이중구속성(double bind theory), Ackerman(1967)이 정신 역동적 가족치료, Wynne등(1958)의 가상호성(Pseudo mutuality)등의 이론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의 연구들은 아버지도 포함시키게 되었고 또한 부부문제에 있어 부부 상호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Snyder). 점차 가족역동과 가족치료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Lidz등(1966)의 결혼분과, 결혼편중, Jackson(1968)의 가족 항상성 등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Saur(1972)는 아동의 병적 행동은 부모중 어느 한 쪽의 정서 장애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권세의 문제에 연구되어 전체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inuchin(1979)은 배우자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부부문제 자체로 표현되기도하고 부부중 한 사람이 정서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자녀를 통해 문제가 표현된다고 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는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기 보다 생물학적 유기체인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Walters와 Stinett 1971). Belsky(1981)는 결혼 불화는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 작용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고, Gassner와 Murray(1969)는 부모의 갈등과 신경증 환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동의 문제는 부모 문제에서 생기고 부모 문제는 또한 아동의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긴다고 하였다. 특히 우울한 편 부모와 반대성(性)일 때에 성 역할의 갈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환자의 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nne(1970)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혼은 완전히 불만스러운 결혼보다도 드물다고 했듯이 문제점이 없는 부부관계란 거의 없겠지만 문제를 지각하여 해결하고 적응하는 방법에 따라 관계는 다르므로 부부의 갈등 정도 및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소아 정신과 치료는 부모를 치료에 개입시켜야 하고 가족 역동을

참고 해야하므로 환아 부모의 부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정신역동을 자녀 문제와 연관시킨 연구는 드물며(홍강의 등 1987)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만족 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로서 정신과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희귀하다. 이에 본 연구는 환아 부모군과 일반 아동 부모군의 부부관계를 비교하였고, 환아 부모군을 진단명에 따라 재분류하여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에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조사대상

### 1. 대조군

1987년 8월에 무직위 선정된 서울 시내 사립국민학교에 다니는 국민학생중에서 정신과 치료받은 경력이 없고 문제행동이 없다고 담임선생님이 판단한 아동의 부모 80쌍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회수된 143부 중에 응답이 불실했던 24쌍을 제외한 50쌍 즉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환아 부모군

1987년 부터 9월 사이에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받은 아동 35명과 시내 소아정신과 외래에서 치료받는 아동 7명을 포함한 총 42명의 환아 부모들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34쌍과 부모중 한 사람만 참가한 9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이었으며 아버지 38명 어머니 39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정도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양군 모두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였고, 중류층으로 제한하였다.

환아는 진단명에 따라 5군으로 분류하였는데 정신증 7명, 신경증 14명, 틱 5명, 자폐증 10명, 정신지체 6명이었다. 환아 42명중 남아가 30명, 여아가 12명이었다.

정신증군은 정신 분열장애와 망상장애를 포함하며, 소 신경증군은 불안장애, 아동기 우울증, 2차성 야뇨증 선택적, 함구증을 포함하며, 틱군은 만성 틱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이었으며 자폐증군은 유아자폐증, 전반적 발달장애를 포함하였다. 정신지체군은 경계선정신지체 또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보이는 아동으로 경련이 동반된 아동도 포함하였다.

수정되어 10쌍의 부부에게 예비적용한 후에 문항을 재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조사방법

### 1. 조사도구

자기보고 형식으로 된 설문지 검사를 이용하였다. 저자는 결혼에 관한 여러가지 설문지 검사중에 문헌(Roach 등 1981) 조사상 가장 타당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결혼 만족도 검사(Snyder 1979)와 부부 적응도 검사(Spanier 1976)를 선택하였다.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와 부부 적응도 검사(Dyadic Adjustmint scale-DAS)는 2명의 정신과 의사와 1명의 심리학자에 의해 번안

#### 1) 결혼 만족도 검사

1979년 Snyder가 고안한 것으로 28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후에 인습성 척도를 보강시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방향으로 왜곡 보도할 수 있는 경향을 배제시켜 총 11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채점 방법은 각 척도마다 채점반이 있어 채점반에 맞추어 원점수가 나오며 표준점수 T점수로의 환산은 규준표에 따라 되지며 평균점수는 50점이다(표 1)

#### 2) 부부 적응도 척도

Spanier와 Cole이 1974년에 만든 척도로서 4항

Table 1. Scales of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

Scales(척도 : 약자)	내용 설명
① Conventionalization(인습성 : CNV)	• 타당도 척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경향. 점수가 낮을 수록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지나치게 높으면 방어적임을 의미
② Global Distress(전반적고통 : GDS)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도를 표시하는 척도 전반적 결혼문제 판별척도
③ Affective Communication (정서적 의사소통 : AFC)	• 배우자가 표현하는 애정과 이해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을 표현하는 척도 높은 점수는 정서적 고립과 역기능 상태를 의미함
④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문제해결의사소통 : PSC)	• 문제해결하는데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이고 불일치를 해결하는 능력의 결여를 표현하는 척도. AFC보다 더 객관적 측면을 조사하는 척도
⑤ Time Togetherness (함께 보내는 시간 : TTO)	• 부부의 공통된 관심사.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척도
⑥ Disagreement about finances (경제에 대한 불일치 : FIN)	• 가족경제 관리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는 척도
⑦ Sexual Dissatisfaction (성적인 불만족 : SEX)	• 성행위의 결과, 빈도에 대한 불만족도, 배우자에 대한 흥미결여 및 성치료의 개입여부에 관련되는 척도
⑧ Role Orientation(역할개념 : ROR)	• 부모로서 성역할에 대한 진보성 또는 전통성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척도
⑨ Family History of Distress (고통스러운 갈등의 가족력 : FAM)	• 불행한 아동기경험 부모의 결혼불화의 경험 확대가족의 경험과 현재 부모가 형제로 부터의 고립을 표현하는 척도
⑩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자녀에 대한 불만족 : DSC)	• 자녀에 대한 실망 및 불만족을 의미
⑪ Conflict over Child Rearing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 : CCR)	• 자녀 교육 원칙에 대한 부부간의 불일치 갈등을 표현하는 척도

DSC, CCR : 자녀에 관련된 척도

AFC, PSC, TTO : 정서척도(affection trial)

복으로 나누어졌고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panier 1976)(표 2).

부부적응이란 결혼 과정에서 현재 상대에 대한 절적인 평가라고 본다 각 하위척도에 대한 점수를 더하여 총점이 100점이하이면 문제가 있는 부부라고 볼 수 있다. Spanier(1976)는 각기 척도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좋은 단서기 되지만 총점수가 가장 의미있다고 하였기에 저자도 총점으로 해석하였다

## 2 조사평가

1) 분석방법은 두 집단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결혼 만족도 검사는 각 11개 척도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student's t-test를 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2) 결혼 만족도의 11개 척도관계를 알기위해 S S P.S.의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 조사결과

### 1. 결혼 만족도 검사(MSI)에 의한 결과

1) 대조군과 환자부모군의 평균치 비교에서 환자 부모군은 대조군보다 역할개념 척도(ROR)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불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1)(도 1).

2) 대조군의 척도별 남녀 비교에서 자녀 양육 갈등(CCR)척도에서만 유의하게( $P < 0.01$ ) 여자의 점수가 높았고 그 외에 전반적 고통(GDS)과 역할·개념 척도(ROR)도 여자가 더 높았다(표 2).

3) 환아 부모군의 척도별 남녀 비교에서 자녀 양육 갈등(CCR)척도에서만 유의하게( $P < 0.01$ ) 여자의 점수가 높았고 그 외에 전반적 고통(GDS)과 역할 개념 척도(ROR)도 여자가 더 높았다(표 3)

4) 대조군의 결혼 만족도 검사(MSI)의 척도별 상관관계(표 4)

역할개념 척도(ROR)를 제외한 모든 척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깊었으며 전반적 고통척도(GDS)와의 상관관계에서 정서적 의사소통(AFC),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 문제 해결 의사소통(PSC), 성적인 불만족(SEX), 함께 보내는 시간(TTO),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고통스러운 가족력(FAM), 역할개념(ROR)의 순서로 연관되었다.

5) 환아 부모군의 결혼 만족도 검사(MSI)의 척도별 상관관계

환아 부모군은 전반적 고통 척도(GDS)와 다른 척도간 상관관계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PSC), 정서적 의사소통(AFC),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 함께 보내는 시간(TTO),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 고통스러운 가족력(FAM),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성적 불만족(SEX), 역할개념(ROR)의 순서로 상관 관계를 보였다(표 5)

6) 환아 부모군의 진단에 따른 척도간 평균치 비교(표 6)

환아의 진단별로 환자 부모군을 5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정신증군은 가장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전반적 고통 척도(GDS, 23.00),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9.67), 정서적 의사소통(AFC, 14.00)

Table 2. Dyadic adjustment scale(DAS)  
Scale(척도 : 약자)

Scale(척도 : 약자)	내용 설명
① Dyadic Consensus(부부일치도 : DC)	•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사이의 의견일치 여부를 의미함
② Dyadic Satisfaction(부부만족도 : DS)	•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임
③ Dyadic Cohesion(부부 결합도 : DC)	•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부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문항임
④ affectional Expression (부부의 애정표현도 : AG)	•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상대방이 표현하는 애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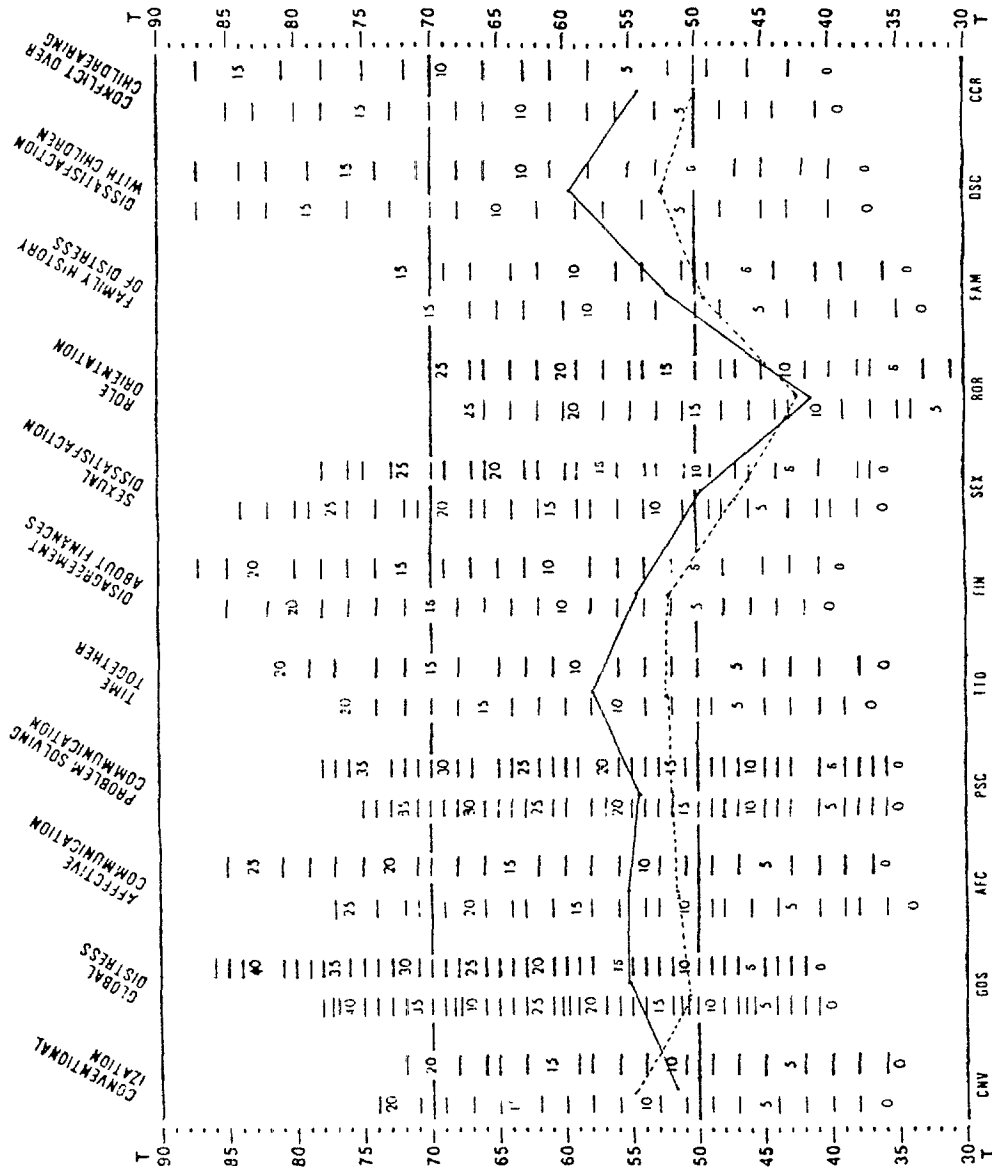


Fig. 1. MSI Profiles for control group and parents of patient group.  
Control group : Parents of patient group

문제해결 의사소통(PSC, 24.17)의 점수가 높았고 역할개념(ROR, 8.92)은 가장 보수적, 전통적이면서 인습성(CNV, 5.84)은 가장 낮은 점수로서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신경증군은 2번째로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TTO, 12.08),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 8.28),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 8.2), 역할개념(ROR, 11.72)척도는 정신증군 보다도 더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틱군에서는 부부의 다른 문제점을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문제해결 의사소통(PSC, 14.3)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 7.1)에서는 정신증, 신경증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도 약간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자녀양육태도의 문제점이 시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MSI mean scale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 for parents of the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Scales		Control group		Parents of patient group	t <sup>a</sup>
		Mean	S.D.	Mean S.D.	
Conventionalization	(CNV)	11.52	(4.69)	9.01( 5.01)	3.42***
Global distress	(GDS)	10.65	(9.99)	15.62(11.35)	-3.22**
Affective Communication	(AFC)	10.52	(4.11)	11.74( 4.45)	-2.46**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PSC)	15.93	(5.53)	18.13( 6.75)	-2.38**
Time Togetherness	(TTO)	8.21	(4.30)	10.04( 3.66)	-2.99**
Disagreement about Finances	(FIN)	6.41	(3.76)	7.14( 3.63)	-1.30
Sexual Dissatisfaction	(SEX)	7.85	(4.89)	9.39( 4.18)	-2.21*
Role Orientation	(ROR)	10.53	(3.50)	10.59( 4.43)	0.23
Family History of Distress	(FAM)	6.20	(2.87)	7.82( 3.52)	-3.47***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DSC)	6.00	(2.95)	8.33( 3.61)	-4.71***
Conflict over child rearing	(CCR)	4.83	(3.12)	6.896( 3.72)	-4.01***

<sup>a</sup>P<0.05 \*\*P<0.001 aDF=175

Table 4. Mean scale scores for male and female in control group

Scale	Mean scale scores		t
	Female	Male	
CNV	10.8	12.24	-1.55
GDS	11.9	9.5	1.34
AFC	10.18	10.12	0.07
PSC	15.24	16.22	-0.85
TTO	8.16	8.42	-0.30
FIN	5.94	6.74	-1.11
SEX	7.72	8.00	-0.284
ROR	11.42	9.76	-2.385*
FAM	6.2	6.36	-0.275
DSC	5.88	5.96	-0.156
CCR	5.1	4.28	-1.474

\*P<0.05(df=98)

Table 5. MSI mean scale scores for male and female in the parents of patient group

Scale	Mean scale scores		t
	Female	Male	
CNV	7.32	10.41	-2.766
GDS	18.47	12.84	2.16
AFC	12.61	10.87	1.70
PSC	18.29	17.97	-0.23
TTO	10.66	9.44	-1.62
FIN	7.32	6.94	-0.53
SEX	8.82	9.87	-1.097
ROR	11.37	9.34	-2.03
FAM	7.74	7.42	-0.42
DSC	8.95	7.55	-1.72
CCR	8.23	5.53	-3.36**

\*P<0.05 \*\*P<0.01 DF=75

Table 6. Correlations of MSI subscales in control group

	CNV	GDS	AFC	PSC	TTO	FIN	SEX	ROR	FAM	DSC	CCR
CNV	1.000	-.754	-.732	-.564	-.573	-.512	-.446	-.086	-.247	-.203	-.342
GDS	-.754	1.000	.731**	.534*	.489**	.606**	.516**	.027	.238*	.319**	.340**
AFC	-.732	.731**	1.000	.645**	.599**	.618**	.463**	-.014	.246**	.269**	.377**
PSC	-.564	.534**	.645**	1.000	.502**	.503**	.476**	-.103	.412**	.215*	.337**
TTO	-.573	.489**	.599**	.502**	1.000	.425**	.305**	-.074	.110	.162	.231*
FIN	-.512	.606**	.618**	.503**	.425**	1.000	.125**	-.079	.274*	.297**	.296**
SEX	-.446	.516**	.463**	.476**	.305**	.425**	1.000	-.114	.100	.347**	.329**
ROR	-.086	.027	-.014	-.103	-.074	-.079	.114	1.000	.015	.012**	.042
FAM	-.247	.238*	-.246*	.412**	-.110	.274**	.100	.015	1.000	.176	.151
DSC	-.203	.319**	.269**	.215	.162	.279**	.347	.012	.176**	1.000	.588**
CCR	-.342	.340**	.377**	.337**	-.231*	.296**	.329*	.042	.151	.588**	1.000

\*P<.05 \*\*P<.01

자폐증에서는 경미한 부부관계의 불만족이 있으나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8.94)은 정신증군이나 신경증군과 비슷한데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 5.94)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자녀문제가 부부자신들의 문제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지체군에서는 자폐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전반적 고통척도(GDS, 10.44)도 낮고 자녀와 연관된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5.77)과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 4.55)은 5군 중 가장 불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 2. 부부적응도 척도(DAS)에 의한 결과

### 1) 대조군과 환아부모군의 비교

환아부모군(94.68)이 대조군(105.58)보다 적응도가 유의한 수준( $P < 0.01$ )으로 낮았다(표 7).

### 2) 대조군에서 남녀비교

대조군을 부부적응도 척도(DAS)의 총점 평균치로 남녀를 비교한 결과 남자는 106.21이고 여자는 104.98로 여자가 적응도가 약간 낮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8)

### 3) 환아부모군의 남녀비교

대조군을 부부적응도 척도(DAS)의 총점 평균치로 남녀를 비교한 결과 남자는 91.88, 여자는 97.11로 여자가 적응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9).

### 4) 환아 부모군에서 진단별 총점 평균치 비교 (표 10)

환아 부모군을 5군으로 분류했을 때 진단군에

Table 7. Correlations of MSI subscales in patients group

	CNV	GDS	AFC	PSC	TTO	FIN	SEX	ROR	FAM	DSC	CCR
CNV	1.000	-.825	-.703	-.718	-.452	-.433	-.133	-.005	-.312	-.269	-.629
GDS	-.825	1.000	.701**	.767**	.541**	.429**	.207	.052	.380**	.340**	.634**
AFC	-.703	.701**	1.000	.678	.624**	.428**	.134	-.025	.260*	.267*	.472**
PSC	-.718	.767**	.678**	1.000	.401**	.439*	.195	-.223	.430**	.216*	.492**
TTO	-.452	.541**	.624**	.401**	1.000	.326**	.156	-.087	.204	.348**	.300**
FIN	-.433	.429**	.428**	.439**	.326**	1.000	.356**	-.062	.156	.247*	.309**
SEX	-.133	.207	.134	.195	.156	.356**	1.000	-.286	.304**	.245*	.070
ROR	-.005	.502	-.025	-.223	-.087	-.062	.286	1.000	.089	.054	.033
FAM	-.312	.380*	.260*	.430*	.204	.156	.304**	.089	1.000	.239*	.260*
DSC	-.269	.340**	.267*	.216	.348**	.247*	.245*	.054**	.239*	1.000	.354**
CCR	-.629	.634**	.472**	.492**	-.300*	.309**	.070**	.033	.260*	.354**	1.000

\* $P < .05$  \*\* $P < .01$

Table 8. Comparison of MSI mean scale scores in five patients groups according to diagnostic categories

MSI scales	Psychotic disorder	Neurotic disorder	Tic disorder	Autistic disorder	Mental retardatio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CNV	5.83( 4.49)	8.39( 5.54)	10.4(3.85 )	9.84(4.34)	12.33(4.71)
GDS	23.00(10.81)	20 (12.30)	7.6(5.295)	12.89(9.62)	10.44(8.66)
AFC	14.00( 3.38)	13.16( 3.87)	9.7(3.84 )	11.26(4.64)	8.44(4.59)
PSC	24.17( 7.38)	19.76( 6.34)	14.3(5.49 )	16 (5.03)	15.11(3.96)
TTO	11.17( 2.27)	12.08( 3.38)	6.6(3.38 )	9.31(3.22)	8.44(2.67)
FIN	7.08( 3.26)	8.28( 4.19)	6 (2.898)	6.47(3.20)	6.33(3.36)
SEX	11.00( 5.15)	9.52( 3.45)	6.8(2.856)	9.42(4.52)	10 (3.80)
ROR	8.92( 3.55)	11.72( 3.95)	9.3(6.17 )	10.21(4.39)	10.66(3.59)
FAM	10.25( 2.60)	7.8 ( 2.91)	7.2(3.89 )	6.68(2.88)	7 (2.21)
DSC	9.67( 2.90)	9 ( 3.82)	6.7(2.93 )	8.94(3.66)	5.77(2.04)
CCR	7.33( 3.47)	8.2 ( 3.78)	7.1(4.08 )	5.94(3.11)	4.55(3.09)

Table 9 Total DAS scale score of control group and parents of patients group

Group	Mean	Standard deviation (S.D)	t'
Control	105.58	(15.76)	
parents of patients	94.68	(17.12)	-4.156

P<0.01

Table 10 Total DAS scale score of male and female in control group

Sex	Mean	Standard deviation (S.D)	t'
Male	106.21	(17.47)	-0.381
Female	104.98	(14.08)	

P<0.05\* a DF=94

Table 11. Total DAS scale score of male and female in parents of patients group

Sex	Mean	Standard deviation	t'
Male	91.88	(18.31)	-1.225
Female	91.11	(17.12)	

P<0.05\* a DF=67

Table 12. Comparison of DAS total scale in 5 groups of parents according to diagnostic categories

Diagnosis	Mean	Standard deviation
Psychotic disorder	85.09	(12.41)
Neurotic disorder	89.29	(18.94)
Tic disorder	100.78	( 4.74)
Autistic disorder	101.88	(14.95)
Mental Retardation	101.89	(14.41)

따라 부부 적응도 척도(DAS) 총점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정신군의 적응도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신경증, 틱, 자폐증, 정신지체의 순서로 보였다.

본 조사에서 대조군은 총점 평균치가 105.58이었으며 Spanier(1976)는 총점이 100이하 일 때 결혼의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신증과 신경증에서만 심한 부적응을 보인다고 하겠다

### 3. 결혼 만족도 검사(MSI)와 부부 적응도 척도(DAS) 결과 비교

1) MSI에 의한 결과는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

보다 만족도가 낮았고, DAS에 의한 결과도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보다 적응도가 낮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2) MSI에 의한 남녀 비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전통적 역할 개념을 갖고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사내 양육감당(CCR)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서 역할 부담이 여자에게 편중되었음을 시사하였고, 부부 적응도 척도(DAS)에 의한 남녀 비교에서 대조군은 남자가 더 적응점수가 높았고 환아 부모군은 여자가 더 적응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3) 환아 부모군을 진단명에 따라 5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부부적응도 척도(DAS)는 정신증군, 틱군, 자폐증군, 정신지체의 순서로 부적응을 보였고 결혼만족도 검사(MSI)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결혼 만족도 검사(MSI)는 총점비교가 아니고 척도별 검사(MSI)의 대표적도인 전반적 고통 척도(GDS)에 따르면 절신증군, 신경증군, 자폐증군, 정신지체군, 틱군의 순서로 불만족도를 나타냈다.

## 고 찰

### 1. 부부관계와 사내의 부적응과의 관계

Rutter(1975)는 아동에 있어 부모의 부부 관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강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밀접한 모델적 관계로서 부모의 태도는 아동이 성장하여 이성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표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이 심한 경우나 부모의 교육방향이 상반되는 경우에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부모와 아동사이에 갈등적 삼각관계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도 환아 부모군의 부부 만족도와 부부적응도가 대조군 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표 8). 결혼 만족도 검사(MSI)의 대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 고통 척도(GDS)가 대조군에서는 정서적 의사소통(AFC),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결혼만족도가 애정, 성, 의사소통과 연관된다고 보고한 김혜선(1982)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반면 환아 부모군은 문제해결 의사소통(PSC), 정서적



의사소통(AFC),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 함께 보내는 시간(TTO,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 고통스러운 가족력(FAM),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의 순서로 전반적 고통척도(GDS)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조군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서 경제나 성, 그리고 근본적인 애정이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었고, 환아부모군은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 고통스러운 가족력(FAM), 인습성(CNV)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P < 0.001$ ) 높았는데 이는 환아 부모군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역할개념(ROR)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환아 부모군이 불만족도가 더 높았다. Snyder(1979)는 이혼소송중에 있는 부부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척도가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녀가 결혼 생활을 유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이었는데 이에 대한 갈등이 높아지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 척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전반적 고통척도(GDS)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부부문제외 자녀 양육 태도와 자녀문제가 연관됨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불만족 척도(DSC)도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전반적 고통척도(GDS)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보다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부부문제와 자녀문제와의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결과이지만 자녀문제, 자녀에 대한 실망 자체보다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더 전반적 고통(GDS) 즉 결혼문제와 연관됨을 보여준다. Thornton(1977)은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표와 관심사이며 이는 결혼을 만족과 안정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는데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자녀에 대한 실망과 불만족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결혼의 불만족과 부적응에 연관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2. 부부의 역할구조와 자녀문제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역할 개념(ROR)이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환아 부모군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환아 부모군은 결혼 만족도에서 대체로 남편보다 아내

가 불만족 점수가 높고 특히 역할 개념 및 자녀 양육갈등 척도에서 차이를 보이며 부부 적응도 검사에서는 환아 부모군의 아내가 적응도 점수가 높은 결과는 역할부담이 편중되며 모성 우월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재석(1971)도 우리의 전통적 모델이라 생각되었던 남편 우위형이 의외로 적었고 자율형이 3할이어서 부인 우월형이 미국과 비슷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최 신덕(1975)은 아이를 돌보는 일에 남편의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요한 전통성의 영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인 역할개념의 보수성, 아내에게 역할 부담의 편중과 일치된다 박 성숙과 이부영(1975)도 남자는 아내에게 매우 종속적인 것을 고집하는 한편 부녀자들은 평등한 부부관을 갖는 사람이 많아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가치관에 있어 개념은 보수적이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모성 우월현상이 나타나는 모순점이 보인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Swensen(1981)은 역할 기대를 초월하여 실제 요구, 느낌, 소망에 근거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갈등에 잘 대처해 간다고 하였듯이 본 연구의 대조군에서는 역할개념이 환아부모군보다도 더 보수적이지만 융통성 있게 역할 수행이 되어져 양육 갈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최신덕(1979)은 서로 기대하는 바에 일치성이 없고 오해와 혼돈이 있을 때에 결혼 불화가 있다고 하였고 전경숙(1980)도 부모의 불일치, 부정적 일치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3. 부모의 가족력과 자녀문제

Belsky와 Isabella(1985)는 결혼이란 초기 가족 경험에 근거한 발달적 현상으로서 가족에서의 경험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아기가 탄생했을 때 원래 가족에서의 경험이 나뉘었다면 이 시기에 요구되는 유효한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부부간 적응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조군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과 고통스러운 가족력(FAM)의 상관 관계가 없었으나(표 4) 환아 부모군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과 고통스러운 가족력(FAM)이 유의한( $P < 0.01$ )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7). 이 결

과는 원래 가족관계가 나쁘면 현재 반개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부모 역할에 영향을 준다는 Arrndell등(1985)의 견해와 일치한다. 김평일(1980)은 애디투스 수준이 한국에서는 초자연으로 승화되거나 혹은 승화되어 있으나 핵가족화 되면서 애디투스 감각관계는 심해간다고 하였고, 이광규(1975)는 부계사회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부사직 도구로서 애디투스 복합과 합쳐져 보다 특수관계를 이루며 부사관계에서 부부관계로 이행되고, 확대가족이 핵가족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예보다 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조두영(1985)은 고부관계는 원전적 부정적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부계가족의 취약점이라고 하였다. 김은우(1963), 이강애(1980), 최승순(1987)도 결혼갈등과 시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오동재와 장환일(1987)은 주부의 긴장도의 원인으로 고부간 갈등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부계사회에서 좀 더 부부 중심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임을 말해 준다고 보겠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환아부모간만이 고통스러운 가족력(FAM)과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와 유의적( $P < 0.05$ )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인 바 가족력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4. 성(性) 차에 따른 자녀문제

Walters와 Summell(1971)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으며 지능에 대한 모성행동의 효과도 남아에게서 더 지속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환아들도 남녀 비율이 2.5 : 1로 남아가 더 많았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이전에는 아버지는 좀 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표현적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동성의 부모가 더 도구적이며 이성의 부모가 보다 표현적 역할을 한다고 밝혀 졌다. 이는 환아가 되는 돌이 남아가 더 많고 자녀 양육에 어머니쪽이 더 갈등이 많은 결과와도 연관된다(표 5, 10, 11)

#### 5. 경제와 자녀문제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척도는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간 더 높았으나(표 3) 전반적 고통(GDS) 척도와와의 상관관계는 대조군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7). 이정순(1982)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을 억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양군에서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는 의사소통척도(AFC)(PSC),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 전반적 고통척도(GDS), 함께 보내는 시간(TTO), 성적인 불만족(S-X)등의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7). 그러므로 경제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보다는 경제 생활에 대한 불일치가 결혼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에 대한 갈등과도 연관되지만 역할개념척도와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만이 대조군에 비해 높기는 하되 유의하게 높지는 않은 양분이었다.

#### 6. 부부의 정서적 의사소통과 자녀문제

Waring(1980)은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고, Hawkins(1979)는 배우자의 친밀도에 따라 의사소통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Snyder(1979)도 결혼 불만족이 정서적 의사소통(AFC)과 문제해결 의사소통(PSC)척도가 가장 예견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저자의 결과도 환아 부모군에서 전반적 고통 척도(GDS)가 문제해결 의사소통(PSC), 정서적 의사소통(AFC),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의 순서로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조군도 정서적 의사소통(AFC),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 문제해결 의사소통(PSC)의 순서로 상관관계를 보인 바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O'Leary등(1983)은 여자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 긍정적 증거,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자들은 이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Rhyno(1981)도 남자는 결혼생활에서 동료의식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Margolin등(1983)은 여자가 남자보다 요구가 많고 시각이 덜 정확하여 일반적으로는 결혼에 더 불만족 한다고 하였고 Madden과 Balman(1981)은 여자가 결혼의 실패를 남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조절 능력이 낮고 대처를 잘 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조군이나 환아 부모군에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적 의사소통(AFC)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위의 O'Leary(1983), Rhync(1981), Margolin등(1983), Mallen과 Balman(1981)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통계적 유의 수준은 아니었고 단지 경향을 나타내주었으며 환아 부모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정서적 의사소통(AFC)에서 유의 수준( $P < 0.01$ )로 불만족도가 높았다(표 3)

Butchnell(1985)에 의하면 결혼에 성공적인 사람은 애정을 주고 받는 점수가 높았으며 불행한 결혼은 애정을 주고 받는 점수가 낮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수를 정서적 의사소통(AFC) 척도로서 측정하였으며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 7 부부의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자녀문제

보다 객관적 측면의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의견의 결정 및 부부간의 권력구조적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Hallenbeck(1966)은 부부의 권력구조를 보상적, 합법적, 강제적, 대상적, 능력적 권력으로 분류하였고 우세한 쪽이 권력을 행사하여 의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신성자(1971)는 계층 차이가 심한 결혼이나 부인이 우세한 결혼은 심리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였고, Jorgensen(1977)도 자신보다 높은 계층으로 결혼한 경우 갈등이 심하다고 하였다. 이는 의견 결정을 하는 경우에 갈등이 생기고 자존심이 손상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arkman(1981)도 결혼 생활의 고통은 보상받지 못하는 의사소통에 의한다고 하였고 Butchnell(1985)은 결혼 적응이 안되는 경우는 우월층속의 갈등이 뚜렷하며 적응이 잘되는 결혼은 누가 우월한가가 뚜렷치 않다고 하였다 Miller(1961)도 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의견 결정을 할 때에 서로 의견을 참작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환아 부모군이 문제해결 의사소통(PSC)의 불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환아 부모군에서는 (PSC)가 전반적 고통(GDS)척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PSC)와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의 상관관계도 높았다(표 7) 특히 정신증군에서는(PSC)

척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는 부부의 권력구조적 갈등과 자녀 문제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표 8).

#### 8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자녀문제

환아 부모군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TTO)는 정서적 의사소통(AFC)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의사소통(PSC), 전반적 고통척도(GDS),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의 순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표 7), 이 결과는 (TTO)가 정서를 특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척도중의 하나라는 사실을(Snyder 1979) 증명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earlman(1970)은 직업상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이들 부부가 공생적 관계를 이루었던 경우에는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심한 대상부전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불만족,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불만족은 부부간 사랑을 확인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여유가 없음을 의미하여 환아부모군이 대조군보다(TTO)척도가 유의하게( $P < 0.01$ ) 높다는 사실은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9. 부모의 성관계와 자녀문제

환아 부모군의 성적인 불만족(SEX)척도는 고통스러운 가족력(FAM,  $P < 0.01$ )과 경제에 대한 불일치(FIN,  $P < 0.01$ ),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P < 0.05$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7). 박정옥과 이태준(1986)은 성생활이란 숨겨져서 신체 증상 등으로 호소되며 성행동 자체는 수행되는 감정깊이에 의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므로 성기능 장애가 큰데도 불구하고 결혼생활 및 성생활을 만족하게 여긴다고 반응한다고 하였다. Levin과 Yost(1976)는 특히 여자는 생리현상과 심리적 만족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여성에 있어 성에 대한 연구가 제한된다고 하였고 이홍식(1987)도 일반 연구의 25%는 절정감을 경험해 오지 못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환아 부모군이 대조군보다 성적인 불만족(SEX) 척도에서 유의적( $P < 0.05$ )으로 더 불만족을 보였음에도, 전반적 고통척도(GDS)와 (SEX)의 상관관계에서는

대조군은 유의한( $P < 0.01$ )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환아 부모군은 유의성이 없었다 반면 성(sex)척도와 고통스러운 가족력(FAM)의 상관관계에서 대조군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환아 부모군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7) Rice(1979)는 갈등의 근본은 정신내적 갈등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유아기 경험과 어린시절의 가족관계로부터 기원된다고 하였다 James(1979)는 어린시절 친구관계, 형제관계가 원만치 못하였거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결혼 관계까지도 연장된다고 하였고, 이윤선과 이근후(1985)는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성생활 불만족과 부적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는 환아 부모군에서(SEX) 척도가 고통스러운 가족력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어린시절의 가족관계가 결혼한 후의 성생활의 영향을 주며 성생활 자체로 불만족이 표현되지 않고 경제에 대한 불만족, 신체증상, 자녀문제 등으로도 표현된다고 볼 수 있겠다.

#### 10. 자녀의 진단 분류에 따른 부부관계

환아 부모군의 부부관계를 자녀의 진단명에 의해 분류해 보면 정신증군은 5군중에서 가장 결혼 불만족도가 높고 부부 적응도도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정신분열증 군에서 부모의 불화나 역할 편중이 뚜렷하고 결혼의 동기가 낮다고 보고한 홍강의 등(197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Farina(1960)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부모는 갈등이 자녀에게로 투사되어 자녀가 결혼 적응의 전쟁터가 된다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 환아 부모군이 전반적 고통척도(GDS)와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  $P < 0.01$ ),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  $P < 0.01$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Walters와 Stinnett(1971)는 모성 우월군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성적으로 수동성을 보이며 부성 우월군은 좀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라 하였다. Hoover(1978)는 정신 분열증 환자의 아버지가 결혼 갈등 척도가 매우 극단적이어서 아주 낮거나 높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점수는 부적응 아동과 일반 아동 아버지의 중간이었다고 하였고 Farina(1960)도 부적응 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아버지가 정신분열증환자의 아버지 보다 더 갈등이 크다고 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 만족도 검사

(MSI)와 부부 적응도 검사(DAS)의 평균치 비교를 하였을 때 정신증군이 신경증군보다 더 불만족도와 구직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부부 적응도 척도(DAS)에서 표준편차를 참고하면 신경증군이 정신증군보다도 더 높은 부적응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Arnold등(1985)은 가족의 성서반응과 정신 신체 장애는 환아 가족관계의 일부라고 주장하였고 가족 관계의 균형은 이를 통해 유지된다고 하였다. Cassner와 Murray(1969)는 신경증적 행동은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발생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유는 부부사이에 직개선에 찬 갈등이 있으며 환아의 반대성의 부모가 우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경증 소년은 모성 우월 가족에서 많으며 소년이 소녀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쉽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신경증군에서 역할개념(ROR),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 함께 보내는 시간(TIO)척도가 5군중 가장 높았으며 이들 척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척도이었다.

틱군은 결혼 만족도 검사(MSI)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CCR)은 증가되고 전반적 고통척도(GDS)는 낮음으로서 양육태도에 문제점을 시사 하였고 부부 적응도 척도(DAS) 결과는 대조군이 총점 평균치가 105.58인데 비해 틱군은 100.78로 적응도가 약간 낮았으나 부적응 수준은 아니었다 홍강의(1981)는 틱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불안과 긴장이 심하며 상당히 위축되고 억제되어 있고 공포, 자기표현력의 부족이 특징이며 가족은 불화와 언쟁이 잦고 긴장감이 감돈다고 하였으며 부모중 한쪽이 엄하고 과잉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Tic군은 부부자체의 불화로 표현되기 보다는 긴장되어 있으면서 자녀 양육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고 사료된다.

자폐증군은 결혼 만족도 검사(MSI)에서 자녀에 대한 불만족(DSC)는 높고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CCR)은 낮았으며, 부부적응도 척도(DAS)는 총점이 101.38로 대조군 105.58보다는 낮았으나 부적응 수준은 아니었다. DeMeyer등(1972)은 자폐아 부모가 유아 수용성, 따뜻함, 자극을 제공하고 먹이는 행동에서 다른 특별한 결함을 보이지 않았

다고 하였고, Rutter(1975)는 결혼 불화가 행동자에 아동의 부모들에서 가장 심하고 과잉운동 증후군에서도 심하지만 자폐증이나 발달장애아군에서는 관련이 별로 없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정신지체군은 부부 적응도 척도(DAS)결과가 사폐증군과 거의 비슷한 101.89를 보였고 결혼 만족도 검사(MSI)는 5군중 가장 불만족도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은 경계선 또는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학습장애 등이 동반되므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업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 부모의 좌절이 크고 자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으리라 예상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외로 불만족도가 낮았다.

Hershorn과 Rosenbaum(1985)은 부모의 결혼 갈등과 자녀의 정서문제, 행동문제와의 연관성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첫째는 양육 행위 자체의 갈등이라 하였고 둘째는 자녀 앞에서 결혼 갈등이 노출되어 결혼 폭력이나 언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결혼갈등과 폭력이 양육행위 자체보다 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Levine(1975)은 결혼 폭력을 목격한 환아군에서 불안장애나 정신 신체 장애 환자가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부의 갈등이 자녀의 문제와 연관 되었음을 보였다 즉 결혼 만족도 검사(MSI)와 부부 적응도 척도(DAS)로서 대조군과 환아 부모군이 명백히 구분되었으며 환아 부모군도 진단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증과 신경증에서 부부문제가 심각하였고 보다 기질적 원인으로 사료되는 자폐증과 정신지체군은 대조군 보다는 부부문제점이 많으나 정도는 미약하였다.

이는 Goldfarb(1970)가 비기질적 정신증 아동의 가정은 기질적 정신증 아동의 부모보다 더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정신분열증과 자폐증을, 둘다 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Kolb 1982) 본 연구에서 이 두군의 부부관계에 대한 결과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의있다고 사료된다

부부 적응도 척도(DAS)에서 탁군은 중간지점에 위치한 결과를 보였으며 결혼 만족도 검사(MSI)에서는 자녀 양육 갈등, 양육 태도의 불일치 등 양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좀 더 진단 분류를 자세히 하여 진단별 각 군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참작한 포괄적이면서도 종단적 연구가 요하리라 생각한다

## 결 론

1987년 7월부터 1987년 9월에 걸쳐 100명의 정상대조군과 77명의 소아정신과 환아 부모군에게 결혼 만족도 검사(MSI)와 부부 적응도 검사(DAS)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환아 부모군은 대조군보다 결혼 만족도가 낮다.

2) 환아 부모군은 대조군보다 부부적응도가 낮다.

3) 환아 부모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녀와 연관된 척도(DSC, CCR)와 고통스러운 가족력(FAM) 인습성(CNV)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환아 부모군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환아 부모군, 대조군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역할개념은 더 진보적이며 환아 부모군에서 역할 부담이 여자에게 편중되며 양육갈등은 모성 우월 현상과 연관됨을 시사하였다.

5) 고통스러운 가족력은 결혼생활의 정서적 의사소통, 성생활, 자녀양육과 연관된다.

6) 결혼 만족도 검사의 전반적 고통척도(GDS)에 의하면 정신증, 신경증, 자폐증, 경신지체, 탁순서로 불만족도를 보였다.

7) 부부 적응도 척도에 의하면 정신증, 신경증, 탁, 자폐증, 정신지체 순서로 부적응도를 보였다.

위의 결과로서 부부의 부적응 및 불만족은 자녀 양육 및 자녀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신증과 신경증의 정신병리는 부모의 결혼 불만족과 부부의 부적응과 연관성이 크며 자폐증과 정신 지체는 결혼불만족과 부부 부적응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김광일(1980) : 변천하는 사회에서의 오이디프스 복합. 신경정신의학 17 : 97-1303  
김영환 · 김향숙 · 이영호(1974) : 통계적 차원과 부

- 모의 태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5 : 92-99
- 김은우(1963) : 한국 여성의 애정 갈등의 요인 연구 - 논문총 제1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의 pp 26
- 김혜선(1982) : 결혼 만족도에 관한 부인과 의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성숙·이부영(1975) : 농촌 부녀지의 가족관-한국 농촌의 사회 정신 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4 : 389-404
- 박성옥·이내준(1986) : 정상적인 부부에게 보이는 성기능 장애의 빈도 가정의 제7권, 제12호
- 신성자(1981) : 기혼 직영 여성의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동재·장환일(1987) : 가정 주부의 가족 긴장도에 관한 연구 - 신경증 및 대조군의 비교 - 신경정신의학 제26권 제12호.
- 이광규(1975) : 부계 가족에서의 고부관계, 우류학 논문집 1 : 119-140
- 이경애(1982) : 고부 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모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303-305
- 이운선·이근후(1987) :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신경정신의학 26 : 54-61
- 이정순(1982) :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일치도와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식·김진학·유계준(1987) : 기혼여성의 성행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6권 제1호 pp609-695
- 전경숙(1980) : 부부간의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두영(1985) : 임상행동과학 서울 : 일조각
- 조희진(1982) :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최신덕(1973) : 도시 부부의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제1부 논문총 제2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73-109
- 최신덕(1979) : 결혼과 가족 서울 : 이대출판사
- 최승순·김현우·김정근(1987) : 핵가족과 직계 가족 주부의 우울성향 비교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6권 제4호 pp735-741
- 최재석(1971) : 한국 도시 가족의 취락 구조, 아세아 연구 제14권 제11호,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
- 홍강의(1981) : Tic 장애의 임상적 고찰 및 치료 소아과 제24권 제3호, pp8-18
- 홍강의·양승은·안동현(1987) : 청소년 정신과 입원 환자의 가족 역동, 서울대학교 정신의학 제12권 제 호 pp23-40
- Ackerman NW(1967) : The psychodynamics of Family Life, New York : Basic Books
- Arrindell WA, Paul MG and Kamp E(1985) : Psychological Profile of the Spouse of the Female Agoraphobic Patient : Personality and Symptom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46 : 405-414
- Bateson G, Jackson DD, Haley J and Weakland J(1956) :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ior Science
- Belsky J(1981) :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 3-23
- Belsky J and Isabella RA(1985) :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 342-9
- Birtchnell J(1985) : The Relationship between Scores of Role's Marital Pattern Test and Independent Rating of Marital Qual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6 : 279-287
- Bowen M( 1978) :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Nason Aronson, Inc.
- DeMyer MK, Pontuus W, Norton JA, Barton S, Allen J and Steele R(1972) : Parental practices and imitative activity in normal, autistic, and brain damaged infants, Journal of Autism and Childhood Schizophrenia 2 : 49-66
- Farina A(1960) : Patterns of Role Dominance and Conflict in Parents of Schizophren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 33-38
- Gassner S and Murray EJ(1969) : Dominance and Conflict in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of Normal and Neurot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4 : 33-41
- Goldfarb W(1970) : Childhood Psychosis, PH Mussen Ed., Cam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New York : Wiley
- Hallenbeck PN(1966) : An Analysis of Power Dynamic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 : 200-203
- Hawkins JL, Weisberg C and Ray DW(1979) : Marital

-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Wesley. Burr New York : The Free Press
- Hershorn M and Rosenbaum A**(1985) : Children of Marital Violence : A Closer look at the Unintended Victims.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55(2) : 260-266
- Hoover CF**(1978) : Differentiating Schizophrenias through Parent Conflic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 844-849
- Jackson DD**(1968) : Communication, Family and Marriage. New York : Science and Behavior Book
- Jorgensen SK**(1977) : Social Class Heterogamy : Status Striving and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 : 636-661
- James M**(1979) : Marriage is for Living. Addison-Wesley Pub. Co
- Kolb LC and Brodie HK**(1982) : Modern Clinical Psychiatry. Philadelphia, London, Toronto : WB. Saunders Co
- Levin RJ and Yost**(1976) : Frequency of Sexual Dysfunction in a General Gynecological Clinic. Archives of Sexual Behavior 5 : 229-238
- Levine M**(1975) : Interpersonal Violence and its Effects on the Children : A Study of 50 Families in General Practice. Med Sci Law 15 : 172-176
- Lidz T, Hecks S and Cornelison A**(1966) : Schizophrenia and the family.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Madden ME and Balman RJ**(1981) : Blame,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 Wives Attribution for Conflic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663-673
- Margolin G, Talovic S and Weinstein C**(1983) : Areas of Change Questionnaire : A practical Approach to Marit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 920-931
- Markman HJ**(1981) : Prediction of Marital Distress : A 5 year Follow 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 760-762
- Miller PL**(1961) : Home Management Patterns of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53 : 95-99
- Minuchin S**(1979) :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O'Leary KD, Fincham F and Turkewitz H**(1983) : Assessment of Positive Feeling toward Spo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 949-951
- Pearlman CA, Jr**(1970) : Separation Reaction of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6 : 70-74
- Renne KS**(1970) : Correlates of Dis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54-67
- Rhine D**(1981) : Base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941-955
- Rice FP**(1979) :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and Bacon
- Roach AJ, Frazier LP and Bode SR**(1981) :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al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537-545
- Rutter M**(1975) : Helping Troubled Children. New York : Plenum Press Co
- Satir V**(1972) : People making.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
- Snyder DK**(1979) :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813-823
- Spanier GB**(1976) :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15-28
- Swensen CH, Eskew RW and Konlhepp KA**(1981) : Stages of Family Life Cycle : Ego Development and the 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841-853
- Thornton A**(1977) : Childre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531-540
- Walters J and Stinnett N**(1971) : Parent-Child Relationship :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70-109
- Wring EM, Tillman MP and Frelick L**(1980) : Concepts of Intimacy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 476-474
- Waring EM**(1983) : The Measurement of Intimacy in Marriage : The Waring Intimacy Questionnai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 53-57
- Wynne L, Ryckoff I, Day J and Hersch S**(1958) :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Psychiatry 21 : 205-220

## A STUDY ON THE PARENTAL MARITAL RELATIONSHIP OF CHILD PSYCHIATRIC PATIENTS

Ke Won Lim, M.D. Kang-E.M Hong, M.D., Kun Hoo Rhee, M.D

*Dr Lim Neuropsychia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ental marital relationships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child psychiatric patients and its control group.

This study was carried out two questionnaire instruments :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 and the dyadic adjustment scale(DAS)

The subjects are parents of the child psychiatric patients.

A matched control group and parents of child psychiatric patients in Seoul area which were collected from July 1987 to September 1987, and classified into five subgroups : 1 Psychiatric disorder 2 Neurotic disorder 3 Tic disorder 4 Autistic disorder 5 Mental retard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

- 1) M.S.I. scale scores of parents of patients group are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 2) D.A.S. scale score of parents of patients group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 < 0.01$ ).
- 3) The global distress scale(GDS) of the M.S.I. was most positively correlated with affective communication(AFC) and problem-solving communication(PSC)
- 4) Female showed more modern concept of role identification than male but tend to have heavier role assignment especially in child rearing practices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maternal domination.
- 5) Affective communication and sexual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couple and child rearing practices are influenced by their own family history of distress
- 6) The marital global distress scale(GDS) score was highest in the parents of psychosis, the next in the parents of neurosis, autism, mental retardation, and tic disorder in descending order of severity.
- 7) The dyadic maladjustment score was highest in the parents of psychosis, the next in the parents of neurosis, tic, autism and mental retardation in descending order of severity.
- 8) Conflict in child rearing and parenting problems were particularly prominent in parents of the tic patients, and their marital relationship was not significantly disturbed.

The above findings suggested that couple adjustment and marital dissatisfaction were closely related with child rearing problems and the children's disorder. So marital dissatisfaction and marital maladjustment seem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genesis of psychosis and neurosis not much in autism and mental retardation